

진기약(陳棄藥)에 관한 일고찰

양경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박사과정 수료

somaqueen@naver.com

- | | |
|-------------------------|----------------------------|
| I. 머리말 | IV. 인도전통의 요법(尿療法)과 진기약의 관계 |
| II. 율장에서 진기약의 의미 | V. 맺음말 |
| III. 『남해기귀내법전』의 용탕과 부노약 | |

요약문

진기약이란 불교에서 출가비구가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이다. 불교경전을 비롯해서 비구의 생활 규범을 담고 있는 율장에서도 진기약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실하다. 출가비구들이 아플 때에는 소의 오줌과 똥으로 만든 진기약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병에 걸린 비구가 진기약 외에도 다양한 약용 음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기약의 복용여부에 의문이 생길만큼 병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율장에서 진기약이 언급되는 곳은 약과 관련된 곳이 아니라 출가비구의 입단의식에 서 다룬다. 진기약은 이상적인 출가사문의 생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의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비약이라는 의미가 된다.

인도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벗어나자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의 역경가나 후대의 학자들은 진기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오해가 생겨났다. 7세기 당나라의 구법승인 의정(義淨)의 저서인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

法傳)』에서 당시 중국불교가 진기약의 실체를 모르고 사람과 동물의 똥과 오줌으로 용탕을 제조하여 약으로 쓰는 관행을 언급하고 있다. 의정은 진기약의 원어인 *pūti-muktabhaiṣajya*와 *pūtimuttābhesajja*의 분석을 통해 진기약을 소의 오줌으로 만든 약[腐尿藥]이라고 정의한다.

진기약의 재료로 언급되는 소의 오줌은 인도의 전통의학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된 약재였다. 소의 오줌을 이용한 요료법은 피부병과 같은 간단한 질병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 치료법이었다. 엄격한 수행생활을 했던 수행자 혹은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을 했던 초기의 불교수행자들이 고가의 재료와 까다로운 법제를 통해 약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인도 전통의학에서 사용된 소의 오줌이 바로 진기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진기약(陳棄藥), 부뇨약(腐尿藥),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 요료법(尿療法), 소 오줌

I. 머리말

불교에서 병에 걸린 비구는 진기약(*pūtimuttābhesajja*, 陳棄藥)을 복용했다고 한다. 진기약이란 부란약(腐爛藥)이라고도 하며, 소의 오줌과 똥을 발효시켜 만든 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체로 진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전에서는 간주(間註)로, 다양한 논문에서는 비구가 병에 걸리면 쓰는 기본적인 약이라는 전제하에, 그 재료는 소의 오줌과 똥, 혹은 사문 자신의 오줌과 똥, 그리고 소의 오줌을 발효시킨 약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중국의 역경가에서 후대의 불교학자에 이르기까지 진기약이란 소와 사람의 분뇨(糞尿)를 이용한 어떤 ‘약’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따라 고체라면 알약과 가루약, 액체라

면 물약, 그리고 연고 등으로 구분 된다. 그리고 용법에 따라 삼키거나 마시며, 환부에 직접 바르고, 코로 들이키거나, 환부를 씻어내기도 한다. 더불어 얼마만큼을 사용해야하는지 그 용량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기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경전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승가생활의 규정을 담고 있는 율장에서조차 진기약의 약성이나 용법, 용량에 관한 언급이 없다.

율장에서 진기약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약과 관련된 장이 아니다. 불교의 입단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수구(upasampadā, 受具)의식에서 사의법을 설하는 부분이다. 사의법이란 출가사문이 마땅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생활규범인데, 분소의(糞掃衣), 결식(乞食), 수하좌(樹下座)와 진기약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출가사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할 물품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수구의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의법에 각각의 추가항목들이 있다는 점이다. 진기약도 마찬가지인데 진기약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속소(sappi, 熟酥)·생소(navanīta, 生酥)·유(tela, 油)·밀(madhu, 蜜)·당밀(phāṇita, 糖蜜)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하고 있다. 출가한 비구가 병에 걸리면 진기약과 함께 이와 같은 5가지의 음식을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사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약의 범주는 진기약의 개념보다는 한층 확장된 형태의 약이 된다.

결국 불교에서 기초의약품으로 소의 오줌과 똥 등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진기약 외에도 실상은 5가지의 기초의약으로 분류되는 약이 또 존재한 것이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약에 관해서는 율장의 약과 관련된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진기약에 대한 설명만은 매우 허술하다.

율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전에서도 진기약 자체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진기약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의 오줌과 똥으로 만들어진 어떤 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과 후대의 사람들은 오해하기 십상이다. 진기약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소의 오줌과 똥, 사람의 오줌과

똥, 급기야 여러 동물들의 오줌과 똥을 이용한 약을 진기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7세기 당나라의 구법승인 의정(義淨)의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해기귀내법전』은 근본설일체유부의 율을 기반으로 당시 중국불교의 율이 인도의 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40가지 항목을 선별하여 정리한 일종의 율서이다. 특히 진기약은 이 가운데서도 1개의 장을 할애할 만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의정은 원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진기약의 형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의정은 진기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 뒤에 실제로는 흔한 재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비약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중국에서는 소의 오줌으로 만든 약이 상비약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가 용탕이라는 새로운 약을 제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기약의 실체는 인도 현지의 법, 전통 민간요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전통의학에는 오줌을 약으로 이용한 치료법인 요료법(Urine Teraphy, 尿療法)이 있다. 이 요료법은 진기약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자신의 오줌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오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오줌을 복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소의 오줌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의 오줌이 약으로 쓰이는 용례와 그 특징을 찾는다면 진기약의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사의법이나 약, 특히 약과 관련된 음식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²⁾ 그러나 진기약을 연구한 선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1) 『南海寄歸內法傳』은 중국 당(唐)대의 고승 의정(義淨, 635~713)이 구법순례기를 떠나 인도의 날란다 사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재 인도네시아의 팔렘방 지역에서 지은 저서이다. 당시 인도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근본 설일체 유부율에 입각하여, 중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관행을 40가지로 간추려서 정리한 일종의 율서이다.

2) 佐藤密雄, 『原始佛教教團の研究』(東京:山喜房佛書林, 1963), pp.220-231.; pp.535-544.; pp.665-679.; 平川彰, 『原始佛教の研究』(東京:春秋社, 1964), pp.473-479.; 土橋秀高, 『戒律の研究』(京都:永田文昌堂, 1980),

다. 본고에서는 불교에서 진기약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그 실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율장이 규정하고 있는 진기약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고, 『남해기귀내법전』에서 의정이 밝힌 진기약의 재료로 소의 오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여 진기약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 전통의 학에서 소의 오줌을 이용한 사례와 그 효능을 밝힘으로서 진기약의 의미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율장에서 진기약의 의미 - 수구의식과 사의법의 제정

율장에서 진기약은 사의법 가운데 하나로, 승가에 입단하는 출가비구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는 부분에서 언급된다. 따라서 진기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의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의법은 현존하는 6종의 율장인 『빨리울(Vinayapitaka)』, 『오분율(五分律)』, 『사분율(四分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십송률(十誦律)』, 『근본설일체유부율(根本說一切有部律)』 등에 대체로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율장이 사의법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4가지 항목의 순서와 부가항목[余得]의 숫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³⁾ 『빨리울』에서는 사의법을 기술할 때 출가자는 걸

pp.290-331. ;山極伸之, 「律藏に規定されない四依」, 『印度學佛教學研究』50卷1號(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0), pp. 447-453.; 立入聖堂, 「律藏が禁止する醫療行為」, 『印度學佛教學研究』57卷2號(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7), pp. 904-907.; 井上綾瀨, 「律文献中の砂糖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65卷3號(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9), pp. 1179-1184.; 井上綾瀨, 「パーリ資料にみられるBhesajja」, 『印度學佛教學研究』58卷1號(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9), pp. 350-347. 佐々木閑, 「「無一物」と「自活の放棄」」, 『印度哲學佛教學』15卷3號(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0), pp. 21-34.; A.N.Thakur, Therapeutic use of urine in Early Indian Medicine, *Indian Journal of History of Science* Vol.39(4)(New Delhi,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2004), pp. 415-427.; Matthew David Milligan, “Of Rags and Riches: Indian Buddhist Patronage Networks in the Early Historic Period”, dissertation(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gust, 2016)의 다수.

3) 山極伸之, 앞의논문, p. 452.

식(piṇḍapātabhojana, 乞食), 분소의(paṃsukūlacīvara, 糞掃衣) 수하좌(rukkhamū-lasenāsana, 樹下坐, 진기약(pūtimuttābhesajja, 陳棄藥)에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켜야한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부가항목[余得]이 더해져 있었다.⁴⁾

여기서 진기약이 부가항목보다 앞서 설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굳이 그 선후를 가리자면 『사분율』의 「약견도(藥健度)」에서 “다섯가지 약(=余得藥)을 허가하기 전에 세존이 부란약을 허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진기약(=부란약)에 숙소(熟酥, sappi)·생소(生酥, navanīta)·기름(油, tela)·꿀(蜜, madhu)·당밀(糖蜜, phāṇita)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⁵⁾

그리고 『빨리울』에서는 사의법을 제정하게 된 인연담(因緣譚)을 기술하고 있다. 한 바라문이 불교비구가 신자들이 제공하는 청식(請食)을 받는 것을 보고, 편안한 생활과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정식 입단의식을 통해 비구가 되었지만, 청식이 들어오지 않아 결식(乞食)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불평을 했다고 한다.⁶⁾ 이 이야기는 『빨리울』과 『오분율』에서는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⁷⁾, 다른 율에는 없다. 하지만 다른 율에서 이 인연담의 존재와 관계없이 대체로 수구갈마가 끝나면 사의법에 대해서 설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사의법을 설하는 순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빨리울』 등이 처음부터 수구갈마가 끝나고 사의법을 설한 것은 아니었다. 출가를 원하는 예비 비구에게 수구의식 직전에 사의법을 설하자 생활규범이 너무 엄격한데 놀라서 입단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따라서 수구의식 이후에 사의법을 설하게 되었다고 한다.⁸⁾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하승기율』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출가생활을 권

4) Vin. I, pp.26-58.

5) 「藥健度」, 『四分律』(T22, pp.866下-871上)참조.

6) Vin. I, pp.26-58.; Vin. I, 38, 1-11; 『四分律』 第34卷,(T 22, p.807.); 『五分律』 第17卷(T22, p.115.) 『마하승기율』 제24권(T22, pp.420下-421上)

7) 佐藤密雄, 앞의 책, p.134.

8) Vin. I, p.33, p.57.

장하기 위해 수구의식 이후에 사의법을 설하던 것을 오히려 앞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했다고 한다.⁹⁾ 이와 같은 엄격함은 진기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기약을 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인연담도 나타나는데, 진기약이 더러워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비구가 등장하자 진기약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며, 병에 걸린 비구는 반드시 복용해야한다고 설한다.¹⁰⁾

사의법에 대한 율장의 기록을 보면 대체로 불교교단에서 출가비구가 지켜야 할 기본 생활규범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불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슈라마나(śramaṇa)의 수행전통에 나타난 일반적인 생활원칙인 분소의와 결식, 수하좌, 진기약의 4가지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의법을 따른 것이었다.¹¹⁾ 초기불교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준칙으로 사의법을 제정한 것은 인도에서는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언급했듯이 4가지 기본 항목에 수많은 예외 조항을 덧붙이고 있다. 사의법 각각의 항목에 덧붙인 부가항목은 불교에서만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불교에 입단한 비구의 생활은 인도의 전통적인 슈라마나 보다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기본 생활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교단에서도 사문의 생활원칙인 사의법을 출가시 입단 통과이례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¹³⁾ 그러나 사의법을 이유로 비구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구속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⁴⁾ 특히 『사분율』에서 제시한 실제 불교교단에서의 출가비구는 청식(請食), 시의(施依), 정사(精舍), 약식(藥食)으로 살아간다고 기술된 점을 보더라도 사의법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보다 유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

9) 山極伸之, 앞의 논문, p. 452.

10) 앞의 논문, p. 451.

11) 佐藤密雄, 앞의 책, p. 134.

12) 앞의 책, p.223

13) 앞의 책, p.143.

14) 山極伸之, 앞의 논문, p.453.

15) Vin., I, 30, 4; 山極伸之, 앞의 책, p.448.

대다수의 불교부파가 재가신자들의 보시를 받아 생활했는데, 비교적 넉넉하고 편안한 의식주 생활을 영위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사의법은 사실상 비구의 이상적인 생활양식이었다.¹⁶⁾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비구의 생활원칙은 사의법이지만 율장에서 제시한 부가항목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불교교단에 출가한 비구는 수계의식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행자의 기본 생활상인 사의법을 수지하도록 하여 출가 생활의 엄격함을 각인시켰다. 진기약이란 사의법과 더불어 불교의 비구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극도의 자기 절제로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출가사문의 이상이다.

비구가 병에 걸리면 철저히 진기약을 복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율장에는 병에 따라 다양한 약의 처방이 언급되어 있고, 특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 외에는 의약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¹⁷⁾ 그렇다고 진기약에 대해서 일종의 이상이자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사의법에 따라 생활을 했던 엄격한 수행자가 있었고, 실제로 복용을 권하는 인연담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기약은 실제로 복용 가능한 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실체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율장 등에서도 설하고 있는 진기약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게다가 소의 오줌과 똥이라는 과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는 점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즉 인도 밖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있어 진기약은 다양한 해석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6) 이자랑, 「초기불교승가의 소유와 분배: 빨리울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33집(서울: 불교학연구회, 2012), pp.7-43; 이거룡, 「인도 수행전통에서 물질적 소유의 의미」, 『인도연구』 제12권 2호(서울: 한국인도학회, 2007), pp.195-223. ; 이자랑, 「빨리울에 나타난 수행자의 생활상」, 『한국불교학』 제55권(서울: 한국불교학회, 2009), pp.177-202. 참조

17) 立入聖堂, 앞의 논문, p.905.

III. 『남해기귀내법전』의 용탕과 부노약

7세기 당나라의 구법승 의정이 저술한 『남해기귀내법전』은 당시 중국불교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정 자신이 실제로 인도에서 보고 배운 바른 법에 대해 정리해둔 율서(律書)이다. 특히 이 책은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의 율(律)에 따라 기술한 책이다. 전체 40장 가운데 1개의 장을 진기약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는데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율장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진기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 7-8세기의 중국 불교교단에서는 사람과 고양이, 돼지의 똥과 오줌을 이용해서 약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 의정에 따르면 오랜 기간 중국불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병에 걸리면 사람의 똥과 오줌을 복용하고, 돼지똥과 고양이 똥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병과 항아리에 담아 용탕(龍湯)이라 부른다고 한다.¹⁸⁾ 의정은 용탕이라는 미사여구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不淨)하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진기약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의정은 진기약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먼저 어원을 분석하고 있다. “범어(梵語)로 포제목저비살사(瞀堤木底鞞殺社)이라고 한다. 포제(瞀堤)라는 것은 진(陳), 목저(木底)는 기(棄), 비살사(鞞殺社)는 번역하면 약(藥)이 된다.”¹⁹⁾고 해석했다. 여기서 포제목저비살사는 산스크리트어로 푸티묵타바이샤자(pūti-mukta-bhaiṣajya)의 음역어(音譯語)에 해당한다. 여기서 포제(pūti)의 원형은 √puj로 ‘썩은 냄새(腐臭)를 풍기다’라는 의미인데 진(陳-오래되다)에 해당하고, 목저(mukta)는 √muc의 과거수동분사형으로 ‘풀어놓아진, 떼어버려진’이라는 의미로 기(棄-버리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살사(bhaiṣajya)는 ‘약(藥)’을 의미하므로 단어 전체를 의역하면 진기약이 되는 것이다.²⁰⁾

18) 『南海寄歸內法傳』卷3(T54, p.225.)“病發即服大便小便。疾起使用猪糞猫糞，或瑠璃瓮貯號曰龍湯。雖加美名穢惡斯極。”

19) 『南海寄歸內法傳』卷3(T54, p.225.)“梵云瞀堤木底鞞殺社。瞀堤是陳。木底是棄。鞞殺社譯之為藥(即是陳棄藥也)”

빨리어인 푸티뭇타베삿자(pūti-mutta-bhesajja)의 구조도 산스크리트어와 동일한데 이 가운데 mutta는 산스크리트어인 mūtra(오줌)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의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약으로 부뇨약(腐尿藥)이라는 것이 의정의 설명이다.²¹⁾

당시 중국에서 진기약의 실체를 몰라서 사용해온 관행적인 약의 재료인 사람의 똥과 고양이와 돼지의 똥은 사실 인도에서 조차 꺼려했다. 의정은 인도의 극형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의 똥을 죄인의 몸에 발라 도시 밖으로 추방하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는 벌도 있다는 것이다.²²⁾

만약에 똥을 씻고, 더러움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지팡이를 두들기고 소리쳐서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음을 알렸다. 실수로 이와 같이 오염된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하면 스스로를 정화해야하며, 신체는 물론 옷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씻어야한다는 것이다.²³⁾ 당시 인도현지에서도 사람 똥과 오줌에 대한 혐오가 중국인인 자신이 보기에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정에게 있어서 똥을 이용하여 진기약을 만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일이다. 특히 사람의 똥과 오줌, 돼지와 고양이 등 소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똥과 오줌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교에서 소의 오줌과 똥을 먹는 것은 외도의 고행의 일종으로 파악한 사례가 있다. 『우바세계경(優婆塞戒經)』의 「의보살심견고품(義菩薩心堅固品)」을 살펴보면 소오줌과 소똥을 약으로 삼는 것은 외도의 고행 중 하나라는 것이다. ‘외도의 고행법(苦行法)을 받았음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실천했으며, 오히려 퇴전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재를 몸에 바르고, 오직 깨·팥·멥쌀·좁

20) 義淨, 『(現代語譯)南海寄歸內法傳: 七世紀インド佛教僧伽의 日常生活』(林昭彦·加藤榮司 譯, 京都: 法藏館, 2004), p.300.

21) 앞의 책, p.300.

22) 『南海寄歸內法傳』卷3(T54, p.225.) “西國極刑之儔, 糞塗其體, 驅擯野外不處人流. 除糞去穢之徒, 行便杖自異. 若誤衝著, 即連衣遍洗.”; 義淨, 앞의 책, p. 300.

23) 義淨, 앞의 책. p. 301.

쌀·싸래기 등을 날마다 한 알씩만 먹거나, 따가운 가시나무·등걸·맨땅·돌로 써 침구(臥具)를 삼았다는 구절에 이어 ‘소의 똥과 소의 오줌을 약으로 삼았다’는 것 또한 의도의 고행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⁴⁾

의정은 진기약의 재료로 소의 똥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의 똥이란 일반적인 소의 똥이 아니다. 반드시 갓 태어난 새끼의 똥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²⁵⁾ 그러나 소의 오줌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율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소인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율장에는 소의 오줌을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한 예를 약의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소의 오줌을 황달이나 뱀에 물렸을 때 약으로 사용한 예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의 오줌에 대해서는 약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⁶⁾

불교에서는 기본약품으로 진기약 외에도 부가항목으로 다섯 가지 음식 등을 기본 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율장에서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의정이 제시한 ‘석밀[phāṇita, 石蜜, 永砂糖]과 사탕’은 율장 등에 나타난 진기약의 부가항목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다. 의정도 실질적으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진기약에 부가하여 율장과 대동소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정이 진기약 자체에 부가항목을 더한 것이야말로 불교 기본약품으로 여겨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기본약품으로 진기약 이외에도 중국에서 얻기 쉽고 항상 지닐 수 있는 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난황(蘭黃)·웅황(雄黃)·자황(雌黃) 등이다. 이들 모두 광물성 약재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상비약으로 적절하다고 권한다.²⁷⁾

24) 『優婆塞戒經』卷2(T24, p.1041) “先從外道受苦行法, 至心奉行, 心無退轉. 無量世中以灰塗身, 唯食胡麻, 小豆, 粳米, 粟米床等, 日各一粒; 荊棘, 惡刺, 椽木, 地石以為臥具; 牛屎, 牛尿以為病藥. 盛夏之月, 五熱炙身; 孟冬之節, 凍水儼體.” 참조

25) 義淨, 앞의 책, p. 301.

26) 앞의 책, p. 301.

27) 『南海寄歸內法傳』卷3(T54, p.225.) “已所不愛寧堪施物. 然而除蛇蠍毒, 自有礪黃, 雄黃, 雌黃之石, 片子隨身誠非難得.” 참조.

무엇보다도 약으로서의 기본적인 효능에 대해서도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남부지방은 더운 지역 특유의 풍토병, 말라리아 등의 열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때에는 감초(甘草), 항산(恒山), 인삼탕(人蔘湯)을 처방하며, 중국에서는 이것들을 약으로 조금씩 자주 저축[少多貯蓄]하는 것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설한다. 특히 건조한 생강[薑], 산초[椒], 후추[pipali, 華芡]는 아침에 먹으면 풍병[風]과 냉증[冷]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²⁸⁾ 흔히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상비약의 개념으로 다양한 처방을 구체적을 설한다는 점에서 의정이 생각하는 기본약품은 진기약을 비롯하여 반드시 효능이 있는 실제적인 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해귀내법전』에서 진기약 그 자체는 앞서 정의한 것처럼 소의 오줌과 똥으로 만든 약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똥은 반드시 갓 태어난 새끼소의 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진기약이란 구하기 쉽고, 흔해야 하며, 누군가 쓰다 버려서 욕심을 낼 수 없는 허드레 약이어야 한다. 소의 태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그러나 소의 오줌 이용할 때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진기약의 재료는 주로 소의 오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인도전통의 요료법(尿療法)과 진기약의 관계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오줌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민간의료법인 요료법(尿療法)이 발달했다. 요료법이란 오줌을 다양한 재료로 섞어서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법이다. 특히 고대부터 사람과 각종 동물들의 오줌의 약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인도의학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된 약의 재료는 오줌이었다. 사람의 오줌부터 소, 염소, 양, 물소,

28) 『南海寄歸內法傳』卷3(T54, p.225.) “若遭熱瘵, 即有甘草, 恒山, 苦蔘之湯, 貯畜少多理便易獲. 薑, 椒, 華芡, 且咽而風冷全祛...不畜湯藥之直, 臨事定有關如. 違教不行罪愆寧免, 錢財漫用急處便閑” 참조.

코끼리, 말, 낙타, 올빼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오줌을 사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²⁹⁾

요료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물은 단연 소다.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신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인도 전통에서는 어머니처럼 여겨졌다.³⁰⁾ 따라서 소의 소변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질감과 거부감이 덜한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동물의 오줌 가운데 소의 오줌이 가장 약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소의 오줌의 다양한 약효들은 고대부터 언급되어 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많은 질병에 대해 인도 의학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³¹⁾

인도의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치료는 사실상 병이 걸린 뒤 치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떨어지는 신체의 기능들을 보완하고, 균형을 잃은 신체의 기능을 바로 잡아 큰 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³²⁾ 여기에 부가적으로 소의 오줌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생긴 고름을 짜내고, 세균에 감염된 장기를 치료 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약서로 꼽히는 『짜라까 상히타(Caraka Samhitā)』에는 소의 오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무려 18가지 이상이나 열거되어 있다. 소의 오줌은 벌레(기생충)를 없애고, 가려움을 진정시키며, 황달, 백색피부증, 그리고 뱀에 물린 것과 같은 독(毒)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³³⁾ 이것은 울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인데, 황달과 뱀에 물린데 소의 오줌을 약으로 사용한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음을 앞의 장에서도 살펴보았다.

여타의 동물들의 오줌이 한정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면 소의 오줌은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 처방되는 만병통치약에 가깝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부스럼 등과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처방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난

29) A.N.Thakur, *op. cit.*, p. 415.

30) *Ibid*, p.416.

31) Jessica Fish, B.A., *op. cit.*, p.17.

32) A.N.Thakur, *op. cit.*, p. 417.

33) *Ibid*, p. 418.

치병으로 분류되는 뇌질환인 간질, 암 등과 같은 각종 종양질환을 소의 오줌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고대 인도 전통 의학에서는, 소의 소변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 독에 대한 해독제로서 처방되었다.³⁴⁾

『수슈루타 상히타(Suśruta Saṁhitā)』에서는 소의 오줌만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³⁵⁾ 소의 오줌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향을 지녔기 때문에 날카롭고 깊숙하게 침투하여, 기관에 열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소의 오줌을 이용한 정화법, 침출, 관장 등의 요법으로 배앓이 등의 질병과 복부의 종양,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비대해 진 것을 완화해 준다고 한다.³⁶⁾

소의 오줌을 기본 재료로 처방된 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마시는 복용약(服用藥)이고 다른 하나는 바르거나 목욕에 사용되는 외용약(外用藥)이다. 외용약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피부질환과 나병,³⁷⁾ 간질 치료제를 들 수 있는데, 소의 오줌을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입욕제나 맛사지 하듯 바르는 약으로 처방한다. 복용약은 그냥 마시는 것을 권하지만 복부의 종양과 장기의 혹이라고 표현하는 암을 치료하는 데에도 소의 오줌에 여러가지 뿌리식물을 더하여 조제한 약의 복용을 권한다.³⁸⁾ 물론 대부분의 질병에 외용약과 복용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먹고 바르는 것을 동시에 처방하기도 했다.

불교경전에서 소의 오줌과 함께 진기약의 재료로 언급된 것으로 소의 똥이 있다. 소의 똥은 소가 제공하는 다섯 가지 성스러운 생산품[pāncagavya]으로 우유, 기(ghee), 커드(curd), 소의 오줌과 함께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오줌에 나머지 네 가지 재료를 달여서 먹으면 간질과 황달, 열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특히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용도로 소똥은 소의 오줌과 더불어

34) Ibid, pp. 419.

35) Jessica Fish, B.A. *op. cit.*, p.14.

36) 小磯學, 「ヒンドウ教における牛の神聖視と糞の利用」『沙漠研究』25(2), 東京: 日本沙漠學會, 2015, p.43.

37) A.N.Thakur, *op. cit.*, p. 418.

38) Ibid, pp. 419.

39) Vin. I. 199-252; 『四分律』卷42(T22, pp.866-874); 『五分律』圈22(T22, pp.147-153); 片山一良(1981), 「初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⁴⁰⁾ 그러나 소의 똥을 먹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재에도 소똥을 약으로 쓰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⁴¹⁾ 소똥을 먹지로 먹게 하는 행위는 인도의 언론에서도 범죄로 다룰 정도이다. 소의 오줌에 비하면 소똥은 일상적으로 먹는 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소의 오줌과 관련하여 인도의 전통의학과 관련한 여러 자료에서 『빨리울』을 인용한 사례들이 많았다.⁴²⁾ 소의 오줌 요법이 『빨리울』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초기불교의 승가는 인도 전통의 의학적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⁴³⁾

소의 오줌을 진기약으로 사용한 예는 불교 경전에서도 발견되는데 『장로게(Theragātha, 長老偈)』에는 사의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걸식(uttitṭhapiṇḍa, 乞食) - 식(食)

소의 오줌(pūtimutta, 牛溲) - 약(藥)

나무아래(rukkhamūla, 樹下) - 거주처(臥坐所)

분소의(parīṣukūla, 糞掃衣) - 의복(衣服)⁴⁴⁾

위와 같은 네 가지 조항을 수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방승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승가입단의식에서 사용된 사의법에 대한 내

期佛敎における文化變容：葉の章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 12, pp.143-144. 등 참조.

40) 小磯學, 앞의 논문, pp.44-45., 中村裕, 「『マヌ法典』に見る淨・不淨觀について」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 33, 東京：大正大學, 2009, pp.284-285. ; Lodrick D.O., “Symbol and Sustenance”: Cattle in South Asian Culture, *Dialectical Anthropology* 29(1)(Springer, 2005), pp.61-84. 등에 소똥의 사용용례나 의미를 살펴보면 약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1) <https://www.telegraph.co.uk/expat/expatnews/7398029/Cow-dung-and-urine-healthy.html>(검색일자: 2018.10.30) 참조.

42) Jessica Fish, B.A. *op. cit.*, p.16.

43) *Ibid.*, p.29.

44) Thag. 1057 cf. Thag. 127

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소의 오줌이 곧 사의법 가운데 진기약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기약이 곧 소의 오줌이라는 것이다.

울장에서 소의 오줌과 똥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복용한 경우는 황달과 같은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약으로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약견도」에서는 소의 오줌과 미로발란(myrobalan, 訶梨勒)을 섞어서 먹으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⁴⁵⁾ 엄밀히 따지면 인도의 요법을 적용한 예이다.

인도 전통의학이 제시한 소 오줌을 활용한 다양한 약들을 모두 진기약의 범주에 넣는다면 진기약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 진기약은 '소의 오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기약은 소 오줌 등을 섞은 약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경우는⁴⁶⁾ 진기약을 인도전통의 요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진기약이 최소한의 물품을 소지하고 그에 의지하던 수행자의 것이라는 점이다. 고가의 약제를 섞은 약을 지니고 처방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유르베다의 전통에 입각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예방하는 용도로서 지닌 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기약의 실체는 어쩌면 요법의 기본이자 가장 기본적인 약인 '소의 오줌' 자체라고 본다. 진기약의 설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발효(醱酵)'라는 거창한 법제(法製)라기보다는 '진기(陳棄)'의 의미를 살린 '오래 묵힌 소의 오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V. 맺음말

진기약이란 비구가 병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약이며, 오래 묵어서 버릴 만큼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과 소의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약이

45) 義淨, 앞의 책, p. 301.

46) 片山一良, 앞의 논문, p.135. 카타야마 카즈요시에 따르면 진기약을 표기할 때 한자로 우수(牛溲)를 채택하고 있지만 괄호에 진기약은 소 오줌(牛尿) 등을 섞은 약이라고 표기한다. 이외의 다수의 논문에서 진기약에 대한 언급에는 꼭 이와 같은 설명이 따랐다.

라고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승가의 생활규칙을 담은 율장에서도 진기약 자체의 약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쓰임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 규정도 없다. 게다가 병에 걸렸을 때에는 진기약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한 것도 아니었다. 율장 내에서도 진기약 대신 실질적인 약으로는 다양한 식재료가 언급되고 있다. 사의법에 더해진 부가항목은 진기약에만 의존하는 의료행위에 한층 더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출가사문의 약의 원칙은 진기약이다. 그러나 율장에서 약으로 기능하는 진기약의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사의법 가운데 하나로 결국 출가수행자의 이상적인 삶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불교교단의 입단에 있어 통과례의 한 부분으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수행생활을 추구했던 사문이나 혹은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을 했던 매우 초기의 불교수행자들은 진기약을 사용했다. 소의 오줌과 똥을 발효한다거나 다양한 약의 법제(法製)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똥과 오줌 그 자체가 지닌 부정(不淨)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7-8세기 인도로 구법을 떠났던 당나라의 승려인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과 『마하승기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바새계경』에서 소의 오줌과 똥을 먹는 것은 외도의 고행의 일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면 인도 내부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기약의 재료로 언급되는 소의 오줌을 이용한 요료법은 인도의 전통의학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소의 오줌 그 자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다. 아유르베다를 다룬 여러 원전에서 인도에서 소의 오줌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 상비약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졌다고 설하고 있다. 수행자가 진기약으로 삼았을 가장 보편적인 재료는 소의 오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인도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흔한 재료로, 적절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소의 오줌이 진기약으로 사용되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불교가 인도와 중국,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며, 시간적 지리적인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낳았고, 인도자체에서는 큰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소의 오줌으로 만든 약’에 설명을 덧붙여야만 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진기약은 최소한의 물품을 소지하고 그에 의지하던 수행자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특별한 약을 제조한다는 것은 수행자의 생활과는 괴리가 있다. 이미 만들어진 약에도 큰 의미부여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도록, 버릴 만큼 가치가 없는 약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기약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발효라고 하는 거창한 법제를 통해 얻은 약이 아니라 요료법의 기본이 되는 ‘소의 오줌’ 자체이거나, ‘오래 묵힌 소의 오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1차 자료

- T = 大正藏 = 대정신수대장경
- Thag = 『장로계(Theragātha, 長老偈)』
- Vin = Vinaya-Piṭakam, H. Oldenberg, London, PTS., 1997.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大正藏24)
-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大正藏23)
- 『南海寄歸內法傳』(大正藏54)
- 『摩訶僧祇律』(大正藏22)
- 『四分律』(大正藏22)
- 『十誦律』(大正藏23)
- 『五分律』(大正藏22)
- 『優婆塞戒經』(大正藏24)

2. 단행본류

- 義淨, 『(現代語譯)南海寄歸內法傳: 七世紀インド佛教僧伽の日常生活』, 林昭彦·加藤榮司 譯, 京都: 法藏館, 2004
- 土橋秀高, 『戒律の研究』, 京都: 永田文昌堂, 1980,
- 佐藤密雄, 『原始佛教教団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3,
- 平川彰, 『原始佛教の研究』, 東京: 春秋社, 1964,

3. 학위논문류

- Jessica Fish, B.A., *Health Care in Indian Buddhism: Erepresentations of Monks and Medicine in Monastic Law Codes*, Master of Arts, McMaster University, 2014.
- Matthew David Milligan, *Of Rags and Riches: Indian Buddhist Patronage Networks in the Early Historic Perio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gust, 2016.

4. 논문류

- 中村裕, 「『マヌ法典』に見る浄・不浄観について」,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 33, 東京: 大正大學, 2009, pp.284-285.
- 立入聖堂, 「律藏が禁止する医療行為」, 『印度學佛教學研究』, 57(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7, pp. 904-907.
- 井上綾瀬, 「律文献中の砂糖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65(3),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4, pp. 1179-1184.
- 井上綾瀬, 「パリー資料にみられるBhesajja」, 『印度學佛教學研究』, 58(1),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9, pp. 350-347.
- 佐々木閑, 「‘無一物’と‘自活の放棄」, 『印度哲學佛教學』 15,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0, pp. 21-34.
- 山極伸之, 「律藏に規定されない四依」, 『印度學佛教學研究』, 50(1),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10, pp. 447-453.
- 小磯學, 「ヒンドゥー教における牛の神聖視と糞の利用」, 『沙漠研究』 25(2), 東京: 日本沙漠學會, 2015, pp.43-51.
- A.N.Thakur, Therapeutic use of urine in Early Indian Medicine, *Indian Journal of History of Science* Vol.39(4), New Delhi,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2004, pp. 415-427.
- Lodrick D.O., Symbol and Sustenance: Cattle in South Asian Culture, *Dialectical Anthropology* 29(1), Netherlands:Springer, 2005, pp.61-84.

A Study on Pūtimuttābhesajja (陳棄藥)

Yang, Kyeong In
Ph.D. course in Indian Philosophy of
Dongguk University

Early records says that a sick bikku took a pūtimuttābhesajja (陳棄藥) which is generally known as a ‘medicine’ made by fermenting bovine urine and shit. Some literary resources add that the drug is the product of fermenting bovine urine and poop, human urine and shit, or bovine urine alone. Chinese translators and the later Buddhist scholars were aware that pūtimuttābhesajja is a ‘medicine’ using bovine or human urine, however, no further details of its substance has been known or found so far.

Only fragments of explanation on the drug can be found in some scriptures, so it is difficult to draw a clear picture of it. The notion of a drug made from the animal refuse is highly unlikely to be accepted by outsiders or later generations who do not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ime.

Such an example can be found in the *Namhaegki guinebopzon* (南海寄歸內法傳) of Yijing (義淨) in 7th century Tang Dynasty. At that time in China, people put human faeces and urine in a bowl, called it ‘Yong-tang (龍湯)’, and took it as a medicine. He criticized harshly, and wanted to correct the custom by giving a proper example of the pūtimuttābhesajja used in India.

The origin of pūtimuttābhesajja can be found in India’s traditional folk remedies of which the urine therapy takes a big part. This paper tried to find the meaning and substance of the pūtimuttābhesajja through investigating the case of using cow

urine and its efficacy in traditional Indian medicine.

Keywords

Pūtimuktabhaiṣajya, Pūtimuttabhesajja, Namhaegkiguinebopzon(南海寄歸內法傳), the urine therapy, Cows' urine

2018년 11월 08일 투고

2018년 12월 11일 심사완료

2018년 12월 13일 게재확정